

# 동물매개치료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동물복지

김옥진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회장  
kimoj@wku.ac.kr



치료와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서 동물의 도움을 받는 동물매개치료의 활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Triebenbacher, 1998). 개, 고양이와 토끼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급만성 질환 환자의 치료에 치료도우미 동물 (Therapy animal)로서 그 사용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김옥진, 2006).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치료도우미 동물은 성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복종과 행동 훈련을 받아야 한다(김옥진과 김병수, 2009).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한 염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훈련과정과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도우미 동물들의 과도한 활동에 대한 강요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위협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erpell et al., 2006).

최근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최근 국내 환경의 변화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류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 증가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치유의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보고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치유의 매개 역할을 하는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5월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에서 동물매개치료 코너를 신설하여 방영을 하던 중, 시청자들로부터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방송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지용

이(7)를 치료하기 위해 레트리버 종의 생후 2개월 강아지 몽실이를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담았다. 지용이의 공격적인 행동, 처음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가족들이 구박하는 듯 보이는 장면, 강아지 발톱을 깎아주려다 피가 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을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많이 있어 제작진을 당황케 하었다고 한다. 70일의 촬영기간 동안 동물 매개 치료를 약물 치료와 병행한 결과 지용이는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와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경험을 거쳐 일반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장애아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례가 됐다고 제작진은 말하고 있다. SBS TV 동물농장의 동물매개치료 사례에서 보듯이 대상자의 치유를 위해 활동하는 매개 동물인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학대와 복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애견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 효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동물매개치료에서 활동하는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한 문제와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본론

치료도우미 동물과 장애인 보조 동물로서 동물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Serpell et al., 2006). 사람과 동물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동물이용이 동물에게 고통과 두려움, 손상을 입히거나 동물들이 그들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희생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충돌이 생긴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동물매개치료와 동물매개활동에서 Delta society와 같은 단체들은 활동에 포함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노력해왔다(Hines & Fredrickson, 1998).

현재 동물매개치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에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부작용으로는 프로그램 활동에 포함된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제도적이고 전반적이 위해성 평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 및 평가를 할 때, 활동에 포함된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1. 치료도우미 동물들의 돌봄과 중개를 위한 윤리 지침

### (1) 치료도우미 동물 사용을 위한 기본 윤리 원칙

- 1) 동물매개치료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신체적 과 정식적 둘 다에서 학대, 불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 2) 항상 적절한 건강유지를 유지를 위한 수의학적 예방과 치료 서비스가 치료도우미 동물에 제공되어야 한다.
- 3) 모든 동물들은 활동이 끝나면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든 활동에 포함된 도우미 동물들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실시되어야 한다.
- 4) 대상자들과의 상호반응은 치료 매체로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치료도우미 동물들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잘 짜여야 한다.
- 5) 치료도우미 동물을 위한 학대와 스트레스 상황은 허용되면 안 된다.

### (2) 치료도우미 동물들을 고려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

- 1) 사람의 필요내용들을 정하기
  - 대상자가 치료도우미 동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나?
  - 얼마나 자주 대상자가 치료도우미 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필요로 하나?
  - 치료도우미 동물과의 접촉상태와 시간보내기에 대한 대상자의 필요를 명확히 한다.

### 2) 치료도우미 동물의 필요내용들을 정하기

- 적절한 돌봄
- 애정
- 조용한 휴식 시간

### 3) 사람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필요를 비교하기

사람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필요가 서로 부딪힐 때, 치료도우미 동물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절대적으로 긴급한 사람 대상자의 필요 내용만이 치료도우미 동물의 기본적 필요 요소들 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극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 (3) 치료도우미 동물을 고려하는 윤리적 경정을 내리는 과정의 implications

- 1) 만약 동물매개치료에 의한 중개활동이 치료도우미 동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면, 프로그램 과정 또는 중개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 2) 치료도우미 동물을 이용하는 동물매개심리상담사는 하루에 여러 번 치료도우미 동물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 3) 나이든 동물 또는 많은 양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들은 그들의 활동을 줄이거나 활동 강도를 낮추어야만 한다. 이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은퇴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상자가 치료도우미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러한 경우가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도우미 동물의 기본적 필요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 대상자가 치료도우미 동물을 학대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동물매개심리상담사는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치료도우미 동물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대가 명백하다면 동물매개치료사는 대상자와 동물 관계를 반드시 종료시켜야 한다.
- 5) 치료도우미 동물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대상자는 치료

도우미 동물의 보조와 도움 능력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의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4항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 2. 치료도우미 동물들에 일어날 수 있는 동물 복지 문제들

### (1) 동물행동학적 또는 사회적 필요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기본적인 식량, 물, 보호에 대한 신체적 요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가능한 언제든지 제공 받아야만 하는 사회적, 행동학적 필요들을 갖는다(Dawkins, 1988). 모든 동물들은 항상 어떤 대상자로부터 어떤 형태의 학대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만약 치료도우미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면 활동하는 환경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은 안전한 휴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동물매개치료에서 이용되는 동물들은 실제적인 대상자 접촉으로부터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고통, 손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적용에 잘 유지되어야만 한다. 만약 동물이 아프게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쳐 보이면 충분한 수의학적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

케이지에 갇혀있는 소형 포유동물들, 새, 파충류는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돌봄의 위험이 크다.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들은 가축화된 동물들 보다 더 특별한 요구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돌봄은 부적합하게 먹이고 물을 적절히 주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만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한 먹음 것을 제공하는 것이 먹음 것을 적게 주는 것만큼이나 부주의한 돌봄이다. 동물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동물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또는 신체적 환경에 갑작스런 변화는 동물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Coppinger & Zuccotti). 예를 들어 훈련을 받으러 보내진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주인으로부터 핸들러에 보내져 변화된 상태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들의 복지를 위협받을 수 있다.

자유롭게 사는 동물들과 반대로 대부분의 치료도우미 동물은 시스템 안에 갇혀 지내야 한다. 그 곳에서 그들의 사회적 삶을 뛰어넘어 조정할 것이 거의 없고 즐겁지 않은 사회적 개입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사회적, 신체적 환경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작

용을 가질 수 있다 (Hubrecht et al., 1992).

불행히도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계획자들과 수행자들이 때때로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에 요구되는 필요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수의사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참여 치료도우미 동물들의 건강유지와 백신을 통한 면역획득을 도와주는 참여 방법을 통해서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의 사회적 건강을 위해 특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 (2) 치료도우미 동물 선택과 양육

동물매개치료에 선택된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그들의 행동을 다소 조정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길들여져야 하고 비자연적 기술을 배워야 될 수도 있다. 모든 가축이 치료도우미 동물이 되는데 적합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개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믿을 만하게 훈련되어진 유일한 길들여진 동물일지 모른다.

치료도우미 동물의 선택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유기견 보호소나 도태되는 동물의 이용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유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도우미 동물 단체들의 절반은 도우미 동물을 유기견 보호소에서 산발하고 있다. 1년에 버려지는 4~5백만 두 중에서 적합한 개를 선발하는 것은 주요 문제이지만, 청각도우미와 치료도우미 개는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택에 제한을 줄여줄 수 있다.

### (3) 발달 상태와 과정의 주의 기울이기 실패

동물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명주기의 후기에 겪은 경험보다 초기의 경험이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rpell & Jagoe, 1995). 이와 같이 초기 어린 연령의 환경 요소가 중요함에 따라 도우미 개의 출생 후 8주를 보내는 곳에 대한 고려가 심각히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소독이 잘된 견사는 어린 강아지의 취약한 면역 시스템에 위험 병원체를 제거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가 도우미 개의 사회화에 중요한 시기이다. 훌륭한 도우미 개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많이 주는 어린 연령 강아지의 외부 환경과 영향 요소 인자에 대하여 잘 조절해야 한다.

**(4) 부적절 또는 비인본적 훈련방법 사용**

동물의 훈련은 외부체벌과 외부 보상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훈련 중인 개에게 보상을 해주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체벌을 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지시에 의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개를 훈련시킬 수 있다. 활동견 전문가들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려는 내적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개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훈련사들에게 요구되는 문제는 개들을 단순히 지치게 하는 단시간적 훈련방법을 중단해야한다는 점이다(Coppinger & Schneider, 1995).

**(5) 비현실적 기대**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그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잡하거나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치료도우미 동물의 신체와 정신에 큰 무리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Coppinger 등(1998)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는 치료도우미 동물에 비현실적인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동안에 치료도우미 개가 휠체어를 끌거나 문을 열어주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치료도우미 개에게 신체적 무리를 주고 반복하면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기대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6) 잘못 설계된 장비와 시설의 사용**

Coppinger 등(1998)은 치료도우미 개들이 수행하는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들에 의해서 도우미들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동물복지를 위해 잘못 설계된 장비와 시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최종 사용자 문제**

치료도우미 동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일부가 충분한 경험이 없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성공적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자에게 동물복지 기준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동물매개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훈련과 사회화된 동물들의 사용은 동물과 사람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활동이 사람 대상자에 이익을 주는 것이 분명한 반면, 도우미 동물들에 이익이 제공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Serpell et al., 2006).

사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수행 과정 동안에 치료도우미 동물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종종 포함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아래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다.

- (1) 치료도우미 동물을 선택하고 육성하는 과정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잘 계획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치료도우미 동물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인으로부터 핸들러에게 보내지게 됨에 따라 느끼게 되는 사회적 유대감의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전 배려가 있어야 한다.
- (3) 야생동물 재활프로그램과 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길 들여지지 않은 종류들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 (5) 치료도우미 동물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히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발육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6) 치료도우미 동물의 훈련을 위해 단시간적 훈련 방법이 아닌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 (7)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동물 친화적 장비와 동물시설이 계획되어지고 구축되어야 한다.



(8) 치료도우미 동물의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동물복지 관점에서 동물의 돌보기와 대하기에 대한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

**고 찰**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과정 동안, 대상자들과 치료도우미 동물,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및 참여 스텝들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치료도우미 동물들과 대상자들의 도입은 동물매개심리상담사에 의해 사전에 잘 계획되어야 하고, 적절한 지 감독되어야 한다. 때때로 일부 대상자들은 동물들과의 접촉을 싫어하거나 치료도우미 동물들과 프로그램을 하기에 부적절한 신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 대상자들에 보상으로 제공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Serpell et al., 2006). 치료도우미 동물들은 프로그램 활동 과정 동안에 스트레스와 임상증상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 과정동안에 발견되는 치료도우미 동물들의 이상에 대한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활동 과정 동안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즉시 감독 스텝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이현아 등, 2011).

지난 10년 이상 동안 동물매개치료와 동물매개활동에서 Delta society와 같은 단체들은 활동에 포함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Hines & Fredrickson, 1998). 현재 동물매개치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 때문에 활동에 포함된 동물에 대한 제도적이고 전반적인 위생성 평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매개치료가 수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는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양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동물매개치료 과정은 철저히 동물복지 관점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과정에서 활동에 포함된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 하기 힘든 일들이 강요되는 것은 없는지 엄격히 고려되고 평가 되어야 한다. 실제 동물매개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치료도우미 동물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동물복지 침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에 대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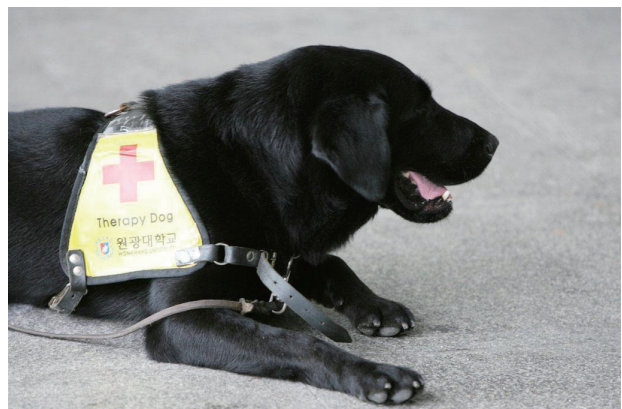
을 마련하고 준수한다면, 치료도우미 동물의 복지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동물매개치료가 사람 대상자와 치료도우미 동물의 쌍방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한 과정이 될 것이다.▽



[지폐아동 대상 동물매개치료와 치료도우미 동물 -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



[지적장애 성인 대상 동물매개치료 -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



[치료도우미 동물 '피터' - 자료 출처: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 대학원]